

## [보도자료] 쿠팡, 새해맞이 1월 패션위크 열고, 캐주얼룩 최대 88% 할인

2021. 1. 4.



“비대면 시대 패션도 캐주얼이 대세”

- 7일까지 여성의류, 남성의류, 신발, 유아동 의류 등 총 1,500여 개 상품 최대 88% 할인
- 온라인  
최저가에서 추가 할인까지, 로켓배송 서비스 이용 가능

2021. 1. 4. 서울 — 쿠팡이 캐주얼룩을 주제로 ‘새해맞이 1월 패션위크’를 연다.

패션위크는 쿠팡이 매달 첫 주 주제를 선정해 패션 트렌드 및 할인 상품을 제안하는 행사다. 쿠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화된 패션 트렌드를 반영해 캐주얼룩을 이달의 패션위크 주제로 선정했다.

재택근무, 원격수업이

늘어나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편하게 입고, 가볍게 외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패션 상품이 인기를 끌고

있다. 이준석 쿠팡 리테일 패션 디렉터는 “지난해

맨투맨, 카디건, 플리스, 트레이닝복

등 편안한 ‘캐주얼룩’을

찾는 고객이 많았다”며 “이에 맞춰 새해맞이 패션위크도 실용성 있는 상품과 활동성 좋은 캐주얼 룩을 메인으로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.”고 설명했다.

오는

7일까지 열리는 이달의 패션위크는 1,500여 개 겨울 패션 아이템들을 최대 88% 할인하여 판매한다. 이번 행사는 여성의류, 남성의류, 신발, 가방/잡화, 유아동 의류/잡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리를 모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나기 패션 상품을 구매할

수 있도록 했다.

브랜드별 할인으로 온라인 최저가에서 추가 할인까지 제공한다. 폴햄과  
탑텐은 최대 88%, 닥터마틴은 최대 76%, 텐디는 최대 59% 할인가에  
선보인다. 오피스웨어 브랜드 지이크, 북유럽  
감성의 유아 의류 마리앤모리, 유니섹스 캐주얼 엘라모 등 8개  
브랜드 상품은 최대 74% 할인하며, 로켓배송  
서비스로 주문 다음 날 수령할 수 있다.

대표상품으로 여성용 기모 맨투맨+하의  
트레이닝 세트를 2만원대, 폴햄  
미니 심볼 오버핏 맨투맨을 1만원대, 해리슨  
후리스 집업을 2만원대, 스파이더맨  
아동용 트롤운동을 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.

취재 문의 [media@coupang.com](mailto:media@coupang.com)